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에페 2, 10)

저는 올해로 수도 생활 26 년(1993 년 입회)을 맞이한 한국 관구 소속 서경선 에밀리아나 수녀입니다. 입회 초기 가족적인 따뜻함을 지닌 수도 공동체 안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어 필요로 하는 곳에 개방된 자세로 응답하는 태도와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기서원기와 종신서원을 맞이하면서 은총으로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이는 겸허와 즉시 그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끄는 소박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세 덕행은 새로운 삶에 대한 모험을 가능케 했으며 엘리사벳 앤 씨튼의 영적 유산을 수도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혀 사랑의 재촉으로 사도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수도 공동체를 통해 현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사회 현상 안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이 시대의 징표를 인식하고,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필요에 응답하고자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아가페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노인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노인전문 요양원은 지상 1 층에서 4 층의 총면적 2,257 m² 규모의 48 명의 노인(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로써 65 세 이상 또는 65 세 미만의 치매, 뇌 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기요양등급 1 급에서 5 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 시설입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나무가 많아 공기가 맑은 환경 안에서 어르신의 일상생활, 여가생활, 건강지원, 신앙생활, 가족 모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특히 정서 지원 서비스를 통한 노인과 만남은 노인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질환의 상태에서도 그 존엄성이 약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치매로 인해 여러 장애를 가진 노인들도 누가 본인을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느님의 선물인 '사랑'의 영역만큼은 그 어떠한 장애나 질병에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바탕으로 노인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노력을 숙고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수도 공동체 회원들을 반영하기에 노인 수녀들에 대한 현실적인 미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동반하게 됩니다.

현재 사도직을 통해 '노인들은 '소유' 보다는 '존재'의 우위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상기하게 됩니다.



We are His handiwork. (Ephesians 2:10)



Hello! I am Sister Seo Kyoung Sun. My baptismal name is Emiliana.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3. This is the 26th year of my religious life. In the early days of my community life, I learned to read the signs of the times and to respond to the needs with openness in our warm family-like congregation. After my temporary and perpetual profession, the three virtues of the congregation allowed me to risk new ventures; "humility accepts new directions with grace, simplicity acts promptly upon them, and charity leavens the whole." I also learned spiritual heritages of St. Elizabeth Ann Seton in the community. My ministries, impelled by love, led me to live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Korea is facing the issue of aging population, since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Our community realizes a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responds to the need of an aging society. I am working as a social worker for the seniors at Agape Senior Care Center in Iksan.



Senior Care Center is a four-story residential facility for 48 seniors with a total area of 2,257 square meters. It is a nursing home for persons over 65 years of age. It is also available to persons under 65 with Long-term Care Classification Level 1 to 5 by government standards. They are diagnosed with age-related diseases including dementia, cerebral vascular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 Our center supports daily life, health issues, leisure activities, faith life and family gatherings in a very beautiful and clean environment surrounded by many trees.

While I meet seniors to help their daily lives through emotional support, I ponder what I should do in order to help them live a happy life. The elderly are human beings created by God's image and their dignity cannot be diminished even in disease. The seniors with various disabilities due to dementia express their love for others and know who loves them. I have experienced that God's gift of love is never damaged by any disability or disease. I consider and practice pastoral efforts for evangelization for the elderly in Jesus Christ. I also ponder the future of our Sisters because the issue of the aging population reflects the reality of our community.

This ministry reminds me of the Catholic Church's teachings that the elderly are people who are realizing the grandeur of life over possessions.

